

# 廣州李氏會報



##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悅親心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勉爾孜孜惜寸陰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老矣無能徒自悔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頭邊歲月苦駸駸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

遺子滿籩金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不如教一經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此言雖淡薄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爲爾告丁寧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 “松齡鶴壽”



## 신년사



존경하는 종인 여러분!

찬란한 태양이 희망의 빛을 발하며 庚子年 새해를 열었습니다. 새해에도 종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인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보니 현 집행부가 출범한 후 어 느덧 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3년간 종인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보다 발전된 종사 운영을 위해 미흡 하나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종회에서는 문중의 정체성 확립과 문중사의 체계적인 기록 보전을 위하여, 먼저 갑진보 판서공 하원대감의 “변설13조”를 공식 번역하여 사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란이 되어온 시조론의 오류됨을 밝히고 번역문을 발간 배포하였으며, 최근 영천 시조 및 둔촌선조님 묘역의 안내 홍보물을 보완 제작하여 종인을 비롯한 방문객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족보의 법례문을 번역하여 서문과 함께 발간함으로써 각 족보의 편찬 경위와 우리 족보의 변천사 등을 파악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거 수차례 시도하다 중단되었던 대종회 “연혁집” 발간 작업을 착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역대문서 전자화” 작업도 병행 추진하여 문서를 비롯한 각종 기록물의 영구보존과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도 계속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조님 유적의 유지 보존을 위해서는 대종회 집행부와 각 지파 도유사들이 함께 문중의 최대 집성촌인 보성과 칠곡을 방문하여 입향 선조님 선영을 참배하고 옛 조상님들의 삶과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바 있으며, 강동구 암사동 소재 구암정 보수와 조경, 둔촌 선조님 신도비 보호를 위한 전통 호박돌 담장 설치, 창녕 운곡서원 구기비 정비, 영천 시조묘역 소나무 전정, 하남 시조비 묘역 사초와 둔촌·청백리공 묘역 조경 및 정비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선양사업으로는 전국 문학인을 대상으로 하는 “둔촌문학상”을 제정하고 2회에 걸쳐 시상식을 가진 바 있으며, 성남문화원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둔촌문화제”의 시행과 중국 심양시에서 개최하는 둔촌백일장에도 참석하여 동포 학생들의 참여 열기와 둔촌선생에 대한 숭모의 분위기를 직접 참관하고 보다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함도 느꼈습니다.

자산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하남시 덕풍동 소재 장기 임대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금지와 지상물 철거 조치를 진행중에 있으며, 강남구 삼성동지역 개발에 따른 수도빌딩의 효율적 운영과 미래를 대비한 자산 증식 방안 등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인 여러분!

대종회는 현재 불확실한 정세의 변화 속에 존재

(宗財)의 유지와 일부 선조님들의 유적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일몰제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공원부지로 묶여있던 성남시 하대원동 소재 대원공원 문중부지가 성남시 측의 수용방침에 따라 6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선조님들의 유택 보존에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종회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12월 임원회의와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현재 전국에 계신 종인들을 대상으로 선영 천장 불가 탄원서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선영 유지와 수호를 위해 대종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종인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문중은 훌륭한 조상님들의 후덕으로 큰 어려움 없이 종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후손들 또한 많은 종인들이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문중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랑스런 廣李의 가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조상님들의 유지인 百代至親의 정을 나누고 화합하는 종회와 종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종인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속에 대종회를 비롯한 각 지파종회가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종인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통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대종회 도유사 옥재-



# 대중회 대의원 임시총회

대중회는 지난 12월12일(목요일) 오전 11시 대중회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총 대상인원 106명 중 85명의 대의원과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재 총무유사의 진행으로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주 의제는 일몰제와 관련하여 성남시 측의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청백리공(휘 지직)을 비롯한 선조님들 묘역 일원에 대한 토지수용계획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다.

도유사 인사와 경과보고에 이어 상정안건의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은후 옥재 도유사의 상세한 부연설명과 대의원들의 의견을 들

는 시간을 가졌으며, 회의결과 묘소의 천장은 절대 불가함을 결의하고, “묘역보존 대책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모든 업무를 위임, 대응키로 하였으며, 만약을 위해 거족적인 탄원서 서명운동도 병행하여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본 회의에 앞서 대중회에서는 11월25일 지파 도유사회의와 11월27일 대중회 임원회의를 갖고, 본 내용을 대의원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바 있다.



# 제401차 재경화수회 월례모임 가져



재경화수회(회장 명환)는 지난 12월 16일(월요일) 대중회 지하회의실에서 제401차 화수회 정기모임을 가졌다.

본회의에 앞서 있었던 교양강좌 시간에는 문경공파 종명 회원이 충효사상과 관련하여 효경(孝

經)의 경일장(經一章)에 나오는 내용을 주제로 준비해온 유인물을 통하여 효(孝)와 관련된 내용과 사자소학(四字小學)의 삼강오륜(三綱五倫)에 대하여 간결하게 강의하였다.

강의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신체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처음이고, 입신하여 도를 행해서 후세에 이름을 날려 부모를 드리내는 것이 효의 끝이다. 아버이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않고, 아버이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않으니...”로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글이 아닐까?

이어서 진행된 본 회의는 충교 총무의 사회로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조상님, 그리고 얼마전 타

계하신 주원 화수회 부회장의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었으며, 회장 인사에서 명환 회장은 주원 회원의 타계에 대한 애석함을 전하고 특강을 맡아준 종명 회원에게 감사함을 전하였다.

다음은 대중회 옥재 도유사께서 대중회 소식과 특히 성남시의 청백리공(휘 지직) 선조님을 비롯한 선조님 묘역의 수용계획과 대중회의 대처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및 이를 대비한 대중회의 탄원서 서명운동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당부하였다.

끝으로 전 대중회 재진 도유사의 2019년을 보내는 연말 덕담과 충교 총무의 응래 전 대중회 도유사 타계 소식 등을 들은 후 이날 모임을 마치고 개별 돈목의 자리를 가졌다.

-재경화수회 총무 충교記-

# 대중회 역대족보 범례집 및 홍보용 안내책자 발간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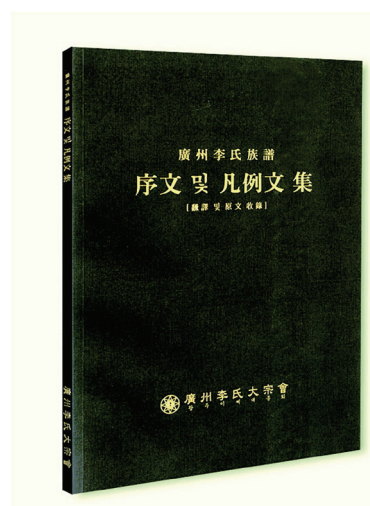
대중회는 2019년도 12월 역대족보(庚戌譜, 甲辰譜, 丙辰譜, 癸酉譜, 己未譜, 丁卯大同譜) 범례(凡例)의 번역을 완료하고 기번역된 서문(序文)과 함께 “광주이씨 족보 서문 및 범례문집”을 발간하고 각 지파에 배포하였다.

각 상대족보의 범례문은 전체가 한자(漢字)와 고어(古語)로 작성되어 일반 종인이 접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각 족보의 편찬 경위, 편수 내용, 구성체제, 그리고 당시 문중의 상황과 편찬에 참여하신 선조들의 뜻(意中)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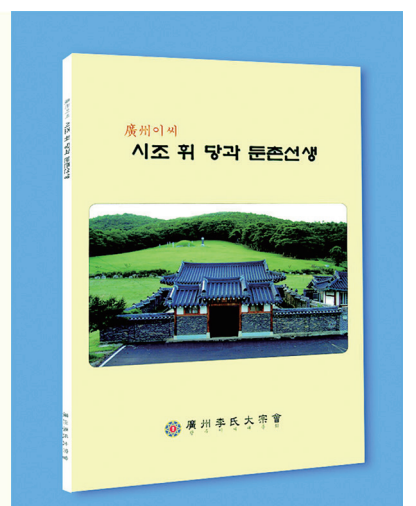
다행히 각 족보의 서문은 오래전 번역되어, 이번에 범례문과 함께 수록 발간함으로써 각 족보의

편찬에 따른 역사적 의미와 이에 따른 우리 족보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번역 배포한 갑진보 판서공 하원대감의 “변설 13조”와 관련하여 기존 묘소 안내용 홍보물을 다시 제작하여 “광주이씨 시조 휘 당과 둔촌선생”이라는 제목으로 영천의 추원재(追遠齋)와 성남의 추모재(追慕齋)를 방문하는 종인 및 내방객에게 배포 중에 있다.



범례문집



묘소방문 안내책자



# 중인 신년 휘호 및 작품

"松齡鶴壽圖 (송녕학수도)" -1면 작품-

## “소나무(松)와 학(鶴)의 수명을 닮아 장수(長壽) 하시길...”



작가소개

- 성명 : 일랑 이종상(一浪 李鍾祥)
- 본문 22代孫
- 주요경력
  -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庚子年 새해 宗人님들 가정에 萬福을”



작가소개

- 성명 : 유곡 광래(有谷 尙來)
- 주요경력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 광주광역시전 · 전남도전 · 무등미술 대전 심사위원 역임
  - 한국미협 · 광주 미협 · 전업작가회 · 흥묵회 회원

### 새해의 기도

새해 초하루가 되거든  
겨레의 종산(宗山) 태백에 올라  
저기 대간 너머 동쪽 바다,  
천지를 불태우며 용솨음치는  
광명한 아침 해를 보아라.

백두로부터 반도의 가운뎃점  
천제단 표석 앞에 무릎 꿇으면  
숨막히도록 느끼고 박찬 가슴,  
두 손 모두어 거룩한 합장으로  
내 나라 내 겨레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정 많고 너그러운 형을

불덩어리 피부으며 욱질하는  
패륜의 아우도,  
가난한 동생 외면하며  
염치없는 놈이라 탓하는  
용렬한 형님도 아닌

우리 모두 배달의 형제임을  
깨닫게 하소서.

동(東)과 서(西) 화개장터에 어울려  
정답게 술잔 나누고  
남(南)과 북(北) 임진각 너른 뜰에  
뜨거운 찻줄로 얼싸안고  
그래, 종교도 이념도 지역도  
은 겨레 하나 되어  
덩실덩실 춤추게 하소서.

작가 : 이 기 순

- 아호 낭산(浪山)
- 시인, 기행작가
- 한국작가회의 회원,

-풀무문학 교문.

-서울 五山고에서 35년 근무

-저서 : 「강물처럼(시집)」, 「독서 평가록」

「문화유산 탐방기」, 「문학의 고향을 찾아서」

「한국문학순례 대표36」, 「내 나라 내 땅」등.



### 우리 (仁)살이

-우농 이광희-

너와 나 우리(仁) 되어  
오늘 초행살이 가꾸세.  
나와 너 또 그분들도  
즐겁게 어울림 살이 다듬으세.

세월위에 인의(仁義) 문양 놓아  
바른 살길 웃음꽃 속 활보하며  
초행인생살이 밝게 불 밝히며  
천명에 순응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세.  
삶의 희망을높이여 기쁨속에  
큰 삶 밝은 사회 이루어  
성현의 가르침 같고 닦아  
천하의 으뜸 살터 만드세.



우농((愚農) 이광희

- 성균관 전인典仁(前)
- 이천향교 장의掌議(前)
- 성균관유도회  
경기도본부 부회장(現)
- 한국문인협회 정회원(現)
- 심운과공종회 도유사



# 지파종회 소식

## 광릉부원군파종회



### ■ 화수회 송년회

광릉부원군파 종회 화수회(회장 종길)는 12월 20일 강동구 명일동 소재 “마포갈비집”에서 종길 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화수회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종길 회장은 인사에서 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며, 그동안 화수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성원을 보내준 회원들께 감사함을 전한 후, “2020년 흰쥐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건강입니다. 항시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늘 화수회 송년회를 마음껏 즐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였다. 이어서 종봉 총무의 진행으로 종길 화수회장, 안산 정래 회장, 그리고 용해 회원의순으로 덕담과 건배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좌의정공파 종회 시하 총무가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해주었다. 끝으로 회원들은 서로 덕담을 나누며 장시간 돈독의 시간을 보낸 후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2019년도 송년회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 ■ 하반기 임원회의 개최

광릉부원군파 종회에서는 12월11일(요일) 하반기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안건은 현임 종선 도유사께서 신병으로 인하여 당분간 종무가 어렵다며 종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이날 종회 규약에 의거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봉수 부도유사를 광릉부원군파 도유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다.

이로써 봉수 부도유사는 2020년 3월 대의원 총회 전까지 광릉부원군파 종회를 이끌게 되었다.



광릉부원군파 도유사 대행

- 성명 : 이봉수(李鳳洙) 23대
- 1942年生
- 주요경력
  - 서울특별시청 행정국 근무
  - 광릉부원군파 부도유사
  - 재경화수회 부회장

### ■ 소종회 단신

#### ● 광릉부원군파 태안종회 & 포천 이곡종회 단합대회 개최

광릉부원군의 여덟째 아드님 이신 별좌공(휘 세훈)후손들은 2019년 12월 8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 소재 “풍경리조트”에서 태안종회(회장 장래)등 4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 하였다.

이에 앞서 후손들은 별좌공 선조님께 합동으로 참배를 드린 후 행사를 진행하였다. 양 종회는 매년 윤번제로 모임을 갖고 송조 돈독의 단합을 과시하고 있다. 두 종회 중 태안 종회가 큰대이며, 포천 이곡 종회(회장 준래)가 작은대이다.



#### ● 광릉부원군파 장악원 종회 건물 준공식

광릉부원군파 장악원 종회(회장 준수)는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1-2번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건물 규모는 대지 약 800평 건평 400평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준수 회장을 비롯해서 종길 화

수회장, 종봉 총무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건물 준공을 축하하였다.

-광릉부원군파 종회 총무유사 문수 책-



## 광릉부원군파 종회 7대 종탁(鍾卓)전 도유사 별세



본 종회 7대 도유사를 역임한 종탁(鍾卓)전 도유사께서 2019년 12월13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종탁 전 도유사는 1989년부터 본 종회를 이끌면서 보학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강의를 통하여 자긍심을 심어주

는 등 종회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안점순 여사와 2남 1녀가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바르게 고칩니다. <제354호>

- 2면 중단 좌측 상 지파명 : 사인\_파종회 → 사인공파종회  
하단 좌측 하 1행 : (諱汝○: 휘 여극) → (諱汝誼: 휘 여극)
- 6면 상단 좌측 하 5행 : 천마총(天馬塚) → 사천마총(天馬塚)



### 광천부원군파종회

#### ■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성금기탁



광천부원군파 종회(도유사 성호)에서는, 2019年 12月12日(木)에 관내인 강동구 천호3동 주민

센터에서 개최하는 “행복 나눔 사랑의 일일 찾집” 행사에 초대되어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탁 하였다.

본 행사는 매년 연말에 시행하는 모금행사로 우리 종회에서는 점점 각박해져가는 현실 속에 관내 유관기관의 노력에 적극 호응하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모금행사에는 대종회 회의 관계로 도유사께서는 참석하지 못하고, 종성 상임부도유사와 종무 총무유사가 참석하여, 담당 복지팀장의 안내를 받아 동장실로 들어가 장병조 동장으로부터 관내의 불우이웃

과 소외된 분들이 다른 동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성금·품(誠金·稟)은 해마다 줄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실정과 “매년(每年) 성금 모금운동에 참여하여주시는 광주이씨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도유사님과 종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는 인사의 말을 해 주었다.

이어서 천호3동의 전반적인 동정(洞政)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계기가 많기를 희망한다며, 좋은 유대관계(有待關係)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행사(行事)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 보다 가볍고, 또한 마음속이 흐뭇함을 느꼈다.

-광천부원군파종회 총무유사 종무記-

### 광원군파종회

#### ■ 광원군 화수회 12월 월례회의 개최

광원군파종회 화수회(회장 광래)는 12월27일(금요일)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화수회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광래 회장은 ‘많은 분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모든 일이 희망하신 데로 이루어지시기 바란다’는 인사의 말이 있는 다음, 점심 총무의 진행으로 국민의례에 이어 대종회 옥재도유사와 광

원군파종회 병대 도유사의 송년 인사, 그리고 환절기 노년의 건강관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멀티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광이 주요행사’ 소식에 대해 준비된 동영상을 방영하고, 광이 종원 간의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유튜브를 통하여도 소식을 접할 수 있음과, 2019년도 춘계(4월), 추계(10월) 아유회를 무사히 마쳤음을 보고 하였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은 광원군파종회의 발전과 화합하는 종회가 되기를 모두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소소정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회원 간 돈독의 시간을 가졌다.

-광원군파 화수회 총무 점심記-



#### ■ 종학 현종 대통령표창 수상



2019년 11월11일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광주이씨 21대손 이종학 현종이 농촌발전에 헌신적

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인 종학현종은 광원군(諱克墩) 18대, 도정공(諱世綸)의 17대 後孫으로 자랑스런 광주인으로 현재 도정공종회의 임원과 현령공종회의 총무를 맡아 봉사하는 등, 종사에도 열성을 다하는 모범종인이다.

또한 경기도 4-H지도자 협의회 수석 부회장으로 평소 사회 봉사활동에도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1984~1985년까지 양평군 4-H연합회 회장, 2010~2012년까지는 양평군 4-H지도자협의회 회장, 2013년~2014년까지는 농업경영인 양평군 연합회 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2002년에는 양평군 농업기술 센터의 친환경농업대학 3기과정을 졸업하였으며 꾸준히 전통장류사업을 추진하여 광주이씨의 농원이라는 뜻의 광이원을 육성하였고, 2012년에는 경기도 6대 농가맛집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종학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양평군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큰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세계] 광원군- 도정공- 상호군- 장렬공- 현령공- 효합- 지조- 상훈- 서규- 석복- 재희-형경- 기봉- 단희- 병정- 승래- 용각- 철재- 22대 종학

-도정공종회 총무 택재記-

#### ■ 제6회 보성 “광주이씨 송년의 밤” 개최

보성에서는 12월 22일 오후 6시 광주이씨 보성 청장년회(회장 재선 21대) 주관으로 출가녀회(회장 용남 20대), 청년회(회장 형재 21대), 며느리 모임 민들레회(회장 염윤숙) 회원 등 보성에 거주하고 있는 종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보성 광주이씨 송년의 밤 행사가 있었다.

이날 청장년회 재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백대

지친 광주이씨의 종친으로 송조(崇祖) 정신과 화합을 당부 하였으며, 각 단체회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었다.

이번 송년의 밤 행사는 보성지역에 거주하는 비교적 젊은 종인들로 구성된 4개 단체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담을 나누고 화합과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이며, 올해로 여섯 번째 거행되었고 매년 연례행사로 갖고 있다.

아울러 보성 청장년회 차기 회장으로 용도(20대) 종원이 선출되었으며, 수락인사로 종인들의

화합단결과 종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 청장년회 회장 재선記-





### 좌통례공파종회

## 칠곡 감호당종회 수상(壽尙) 현종 서예공모대전 특상 수상

지난 12월 21일(토) 오후 2시에 인사동 대일빌딩 2층에서 제33회 대한민국 서예미술공모대전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본문 21대손 수상(壽尙) 현종이 특선을受賞하였다.

수상 현종은 석담(諱 潤雨)선생의 三男인 감호당공(諱 道章)선조님의 11代孫으로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하였으나 서예를 본격적으로 배운지는 3년으로, 이번 공모전에서 영광의 수상을 하게 된 것이다.

수상 현종의 세계(世系)는 다음과 같으며, 수작 내용과 해설문을 함께 실는다.

[世系] : 禮孫→克堅→擘→德符→遵慶→熙復→潤雨→道章→元裕→喬命→世璣→舜中→東蓋→駟運→以明→普淵→相鎬→琦煥→壽尙

唐나라 孟浩然 詩 春曉  
春眠不覺曉 : 봄잠에 취해 새벽이 오는 줄도 몰랐더니

處處聞啼鳥 : 여기저기서 새들이 지저귀는구나.

夜來風雨聲 : 밤새 세차



게 몰아친 비바람소리에  
花落知多少 : 떨어진 꽃들은 또 얼마나 될까?

-칠곡감호당 종회장 형석記-



### 지파도유사글 문속공파종회



인간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인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이 인간사회를 이루는 인연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회 활동 속에서 만나는 우연의 인간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핏줄로 연결되는 필연적인 혈연의 인간관계가 있다.

우연은 사회적 관계에서 연속성을 갖지만, 필연은 혈연관계에서 영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혈연은 공동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결합원리로서 가정은 물론 사회나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왔다. 또한 혈연은 인간관계의 시작점이며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 혈연관계의 계보를 이루는 상위 공동체가 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문은 한 조상을 중심으로 가풍과 전통을 이어가면서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하고 가문을 빛내며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가문이라 함은 대대로 그 집단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영위해왔는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런 특성들이 넓게는 구성원들의 생활양식, 좁게는 그 문중에 속해있는 각 가정의 자녀들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성격 형성에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훌륭한 선조들을 현양하고 가풍과 유훈을 이어받아 가문을 더욱 빛내는 등 다른 가문의 모범이 되어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것은 곧 그 가문의 자랑이요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출신 가문을 중요시 하는 관념은 훌륭한 선조를 본받아 어른을 공경하고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과정을 포함한 가정교육이 자녀들의 인성형성에 중대한 영

## 명문가문의 명예와 영광이 대대손손 이어가기를...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문의 존재는 개인의 행동 규범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그에 따라 개인은 언제나 그의 행동이 혹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가문을 빛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행동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가문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특출한 한 두 사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가풍과 전통이 정립되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쌓아 오으로써 명문 가문이라는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광주 이씨 가문은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600여 년간 명맥을 이어 온 명문 중에 명문 가문이라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 이씨 가문이 대대손손 명문가문으로써의 명성과 명예를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비롯한 후손들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시작은 각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가문에 대한 역사와 전통, 훌륭한 선조들의 얼을 심어준 명문가문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함으로써 좋은 인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여 가문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나의 경험으로도 어릴 때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어릴 때 집안 어른들이 모이면 가문의 역사와 선조님들에 대해 나누신 얘기들을 스쳐 들은 것이 나의 성장과정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때 집안 어른들에게서 들은 얘기들 중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지면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 사실과 다를 수 있음) 시조이신 당 할아버지의 묘소가 영천에 모셔지게 된 사연, 둔촌 선조와 팔극 선조들의 벼슬, 그리고 이조 오백년 중 우리가문에서 가장 많은 인재가 등용되었다는 등등 명문 중 명문가문이라는 얘기와, 우리 지파(문속공파) 시조이신 지파강자 할아버지가 우리 문중에서는 가장 먼저 시호를 받으신 분

이라는 사실, 또 연산사화(갑자사화) 때 멸문지화에 이르러 극자령자 할아버지(문속공파 울진 입향조)께서 울진 평해로 피신하여 세거하심으로써 일가를 이뤄왔다는 얘기, 또 어머님으로부터 너희 성씨(광주이씨) 본거지가 경기도 광주이고 훌륭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듣고 어린 나이에 다 이해는 할 수 없었으나 막연하게나마 나는 좋은 집안의 후손으로써 근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운명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가족이 일찍 서울로 이주하여 살다가 사정상 다시 성남으로 이주한 관계로 나는 성남시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둔촌 할아버지의 묘소가 성남에 있고, 지역에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나도 훌륭한 둔촌 선조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크나큰 자부심을 가졌다. 또, 성남시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재직하던 때 성남시 내에 모셔져 있는 청백리공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여러 선조님들의 묘역을 향토 문화재로 지정하고 둔촌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선조들의 현양사업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점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 만약 그 당시에 그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 가문과 관련이 없었다면 그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다. 우리사회의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보다도 혈연으로 맺어진 한 가문의 공동체 인연은 바꿀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으며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것이다.

따라서 광주이씨 가문의 모든 구성원은 명문가문의 일원으로써 훌륭한 선조님들의 숭고한 정신과 유훈을 받들어 계승 발전시키고 자녀들의 훈육에 힘써 가문의 명예와 영광이 대대손손 영원히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졸필을 맺는다.

-문속공파 도유사 용중 글-



# 靜齋公(諱 聃命) 永思碑와 思老親曲 十二章 紹介

## 정재공 (휘 답명) 영사비 사노친곡 십이장 소개

정재공(諱 聃命)께서는 文翼公(諱 元禎)의 長男이시고, 인조24년 병술(1646) 7월23일에 출생하시어 숙종 신사년(1701) 정월 16日 돌아가셨다.

21歲에 생원시에 장원급제(현종七年 병오)하시고, 현종 11년 경술(1670년) 25歲때 별시문과에 아원으로 급제하셨다. 도승지를 지내시고 영남관찰사에 이어 공조, 예조, 이조참판을 역임하셨으며, 45歲에 우승지 대사간 부제학 등을 거쳐 肅宗16年 경상도 관찰사로 보임 되었다. 공이 부임하니 이 지방은 몇 해 동안이나 가뭄으로 백성의 생활고가 극심함을 보고 조정에 보고하여 도민에게 감세의 혜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타도에서 차곡하여 고루 분배하였다.

그 해에 보리가 황모 병으로 전멸 형편인데 가뭄이 계속되어서 못자리마저 못 하게 되니 나라에 저축 곡과 개인이 보유한 양곡을 합치더라도 태반의 식량이 부족한 형편인바 영남도민의 태반인 백만명 이상이 속절없이 아사할 지경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타도의 양식을 빌려서 골고루 분배할 때에 자신의 봉급까지 출연하고 군관을 보내어서 四등급으로 고루 나누어 도민의 도민을 구제하였다.

그러나 그때 기민 곡은 신곡이 나올 때까지 알맞게 배정하였는데 기후 관계로 약 20일간쯤 수확이 늦어지게 되었는데 마침 호남에서 상납 곡이 낙동강 선박 편으로 운반됨을 알고 즉시 하륙을 명하여 각 군에 고루 분배하고 이를 조정에 보고하였더니 조정에서는 대신들이 말하기를 은혜는 자기에게 돌리고 원망은 조정으로 돌린다. 고 하며 의론이 분분하며 탄핵 설까지 나돌았다.

그때 공이 상소로 답해 가로되“백성의 생명이 조석에 달렸는데 묘당의 의논은 늦어지어 달이나 걸릴 것이니 신이 만약에 묘당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면 어찌 전하의 적자를 구할 길이 있겠습니까?” 하고 상소하였다.

상소의 본문 중에서, 「民命은 顯於朝夕하고 廟堂之議는 濫於旬月이니 臣若事顧望 이며 何以救殿下之赤子乎 하리오」 왕은 그 심정을 파악하시고 다시 대사헌으로 보임 소환하였으나, 공은 이에 부임하지 아니하시었다.

49歲 肅宗二十年 甲戌獄事로 소환되어 차성으로 유배되었으나 肅宗二十五年 기묘(1699)에 향제로 풀려서 퇴거하시었다.

숙종27년에 病卒 하시니 도민들은 공이 전날 도민을 구제해준 은덕을 기리고자 永思碑를 세우고, 道內儒林에서는 不遷位로 모시기로 결의하고, 東山齋에 別廟를 지어 位牌를 모시고, 그곳에 祭廳을 마련한 것이 紹巖齋(소암재)이다. 돌밭

(石田)종택의 사당에는 父君이신 귀암 문익공께서 불천위로 모셔져 있기 때문에 한 사당에 두분의 불천위를 모시지 않는다는 禮道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 ◆ 思老親曲 十二章中 四章(1, 2, 6, 12)을 紹介한다.

#### [제1장]

봄은 오고 또 오고 풀은 또 풀으네  
나도 이 봄 오고 이 풀 푸르기 7 티  
어느날 故鄉의 도리가 노모씨 뵈오려뇨.

通解 :귀양살이 4년 동안 봄은 되풀이하여 돌아오고, 봄을 맞이할 때마다 풀은 싱싱하게 푸르는데, 나도 이 봄에서 느끼는 희망에 찬 마음과, 풀에서 느끼는 活氣를 되찾아, 어느날 고향에 들어가, 그림던 老母를 뵈을 것인가?

#### [제2장]

親年은 七十五 | 오 嶺路는 數千里오  
도라갈 期約은 가디록 아득하다.  
아마도 좀 업슨 中夜의 눈물 계워 설웨라.

通解 :늙으신 어머니의 연세는 벌써 일흔다섯이나 되셨고, 영을 넘어 고향으로 가는 길은 수천리나 먼데, 귀양살이가 풀려서 고향으로 돌아갈 기약은 날이 갈수록 아득하다.

이런저런 많은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이 한밤에 흐르는 눈물을 이기지 못하여 서러워하노라.

#### [제6장]

기력이 아니 느 니 편지를 누 전하 리  
시름이 7 득하 니 꿈인들 이를  
손가 每日의 老親 얼굴이 눈의 森森하 야라.

通解 :기러기가 날지 않으니 편지를 누가 전할 수 있었으며 마음에 근심이 가득차 잠이 오지 않으니, 꿈인들 풀 수 있겠는가 날마다 늙으신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 얼굴이 눈에 삼삼하구나.

#### [제12장]

가치울거나 거미 느 리거나  
燈火 열리거나 아마도 반가운 奇別을  
어느 晷에 드르 려뇨.

通解 :까치가 울거나, 거미가 내리거나, 燈火가

열릴 때마다, 혹 기쁜 소식이 있으려나 하고 기다리는데, 그 반가운 소식은 어느 때에 들을 수 있겠는가?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냄)

#### - 結 言 -

정재공께서 肅宗二十年(1694) 甲戌獄事(갑술 옥사)로 인하여 昌城으로 流配(유배)되어 6년의 配所生活을 하시면서 4년 되던 해에 75세의 老母를 생각하시는 마음 哀切(애절)한 鄉愁(향수)와 思老親(사노친)의 斷腸(단장)의 노래가 漢詩文이 아닌 우리말로 時調로 이루어 졌음은 또한 깊은 일이라 하겠다.

정재공은 학자요 정치가이다. 선조님의 문집을 보면 疏(소), 啓辭(계사)誌같은 部類에 비해 漢詩는 모작한 편이다. 時客아닌 선조께서 風流를 즐기는 歌客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면서도 先老을 잃은 悲痛 다음으로 哀切한 思母의 정에 부딪쳤을 때 天出로 孝誠이 그대로 우리말 우리노래로 流露(유로)된 것으로 時調의 本領을 발휘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時調文學史上의 소중한 유산이며, 학생들의 학습자료로 연구, 공부하는 곳도 있다.



- 觀察使公宗會 -

## 이달의 행사 계획

### 1. 대중회 "신년교례회" 개최

- 일시 : 2020년 01월0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퍼시픽호텔 2층 "남산홀"
- ※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

### 2. 재경화수회 신년교례회

- 일시 : 2020년 01월15일(수) 오후 5:00
- 장소 : 대중회 지하회의실



# 성남시 금토동(金土洞)과 둔촌(遁村)



청룡이 산허리를 뚫고 나와 승천하였다 하여, 청룡산(淸龍山)이라 불렀다는 청계산(淸溪山)은, 정상인 망경대(望景臺)를 비롯하여 옥녀봉, 청계봉, 이수봉 등의 여러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 목은 이색, 일두 정여창, 추사 김정희 등 절개 곧은 선비들이, 난세를 피해 은거한 충절의 산으로도 유명하다. 청계산 줄기가 흘러내린 동쪽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金土洞)인데, 서쪽은 의왕시 청계동과 맞닿아 있으며, 남쪽은 분당구 운중동 및 판교동, 북쪽은 수정구 상적동과 접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대왕면 금토동(金土洞)이었다가, 금현동(金峴洞)과 둔토리(遁土里)를 합쳐 지금의 성남시 수정구 법정동이 되었다.

청계산에서 물이 흘러 이곳을 지나서 하천을 금토천(金土川)이라 부른다. 금토동에서 금토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두 개의 바위에 각각 암각사가 새겨져 있다. 하나는 '옥경산(玉磬山)', 다른 하나는 '청계(淸溪)'인데 금릉(金陵) 남공철(南公轍)이 새긴 것이다.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문장가이다. 본관은 의령(宜寧)이며, 자는 원평(元平), 호는 금릉(金陵) 또는 사영(思穎)이다. 남공철의 집안은 대를 이어 문장가로 명성이 높은, 대표적인 문한가(文翰家) 집안이었다. 남공철은 1792년 친시 문과에 급제한 뒤, 정조(正祖)의 지극한 우대를 받아, 주로 대사성으로서 후진 교육에 전념했으며, 순조(純祖)가 즉위한 후에는, 이조판서를 아홉 번이나 제수받기도 했다. 대제학(大提學: 부친 남유용(南有容) 역시 대제학을 역임했다)을 거쳐, 1817년에 우의정을 제수받았으며, 1833년 영의정으로 치사(致仕)해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남공철은 독서를 좋아했고, 경전(經典)의 뜻에 통달하여, 많은 금석문(金石文)

과 비갈(碑碣)을 남긴, 당대 제일의 문장가(文章家)였다.

남공철은 바로 금토천이 흘러나오는 계곡 청계동(淸溪洞) 금릉(金陵)에 살았다. 둔촌(遁村)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었다. 그는 정자(亭子)를 짓고, 자신의 호를 따서 '우사영정(又思穎亭)'이라 하고, 그 옆에 '옥경산장(玉磬山莊)'을 지었다. 남공철은 영의정으로 치사(致仕)한 뒤, 금토동에 99칸의 대규모 건물을 짓고, 임금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이곳에서 한가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하여, 당호(堂號)의 편액을 '귀은당(歸恩堂)'으로 칭하였다. 지금은 없어진 건물터인 귀은당지(歸恩堂址, 금토동 530번지 일대)는 건물터에 주춧돌과 장대석(長臺石) 그리고 연못지 등이 남아 있다. 밤에 바위 평상위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보면, 산이 트인 부분에 달빛이 일렁이는데, 텅비고 푸른 하늘에 파도가 멀리 쏟아지는 듯한 형세가 있었다고 했다. 물의 발원은 청계산인데, 멀리 십리에서 청계산 물이 발원을 하고 그 아래로 내려오니, 이를 장곡(長谷)이라고도 하였으며, 이 일대를 청계동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남공철은 그가 지은 둔촌제승기(遁村諸勝記)에서 '광주 관아 서쪽 30리를 금릉(金陵)이라 한다. 평평한 밭두둑과 푸른 들판이 가운데 있고, 먼 산이 마치 병풍을 늘어세운 것처럼 둘러싸고 있다. 땅은 벼와 밀을 심기에 알맞으며, 돌을 구워서 기화로 만들기도 한다. 그 가운데 주점이 있는데 주점 곁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면 산이 더욱 좁아지고 골짜기가 깊어지면서 점차 팔팔 흐르는 물소리가 들린다. 몸을 구부리고 문처럼 생긴 곳을 들어가면 바로 둔촌(遁村)이다. 작은 언덕이 이어 있어 마치 숲 같기도 하고 바둑판 같기도 하며 말 갈퀴 같기도 하고 나란히 솟아난 죽순 같기도 한데 한 구역을 이루고 있다.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땅이 마르고 깨끗하며 한가하고 넓은 곳임을 알게 된다. 그곳에는 숲이 울창하다. 세상에 전하는 바로는 고려 때의 학사(學士) 이집(李集)이 살던 곳이라는 터가 있는데 그 후 권씨가 살

다가 다시 주인이 바뀌어 지금은 나에게 돌아왔다. 금릉과 둔촌은 모두 청계산(淸溪山)으로부터 구불구불 뻗어 나와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을을 이루는데 세시(歲時)마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왕래하여 계(契) 모임을 갖는다.

## -둔촌제승기(遁村諸勝記) 中-

『廣州府治西三十里曰金陵。在平曠綠野中。遠山環之若列屏。土宜禾麥。其石可燬而爲瓦。中有酒店。店傍得小徑。山益峽束。漸聞泉瀰瀰有聲。人偃偻入若門焉。曰遁村。小丘纍纍。若釜者。若杵者。若馬鬣者。若駢筍者。結撰爲一區。入其洞。始覺乾淨開曠。其地林木蒼蔚。世傳高麗時李學士集故址。其後權氏居之。又再易主。今歸于余。金陵遁村。皆自淸溪山逶迤而來。間一岡爲同里。歲時。居人相往來修禊。(金陵集 卷之十二)』라고 하였다.

남공철의 기록에 의하면 청계산 아래 금토동 금릉에 둔촌 선조(先祖)를 비롯한 광주이씨(廣州李氏)들이 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을 둔촌(遁村)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이외에, 지금은 경작지로 이용되고 수목으로 가득 차 옛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서 우리의 또 다른 옛고향 둔촌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릉(金陵, 遁村)에, 우리 광주이씨 둔촌선조(遁村先祖)는 언제, 왜, 언제까지 거주하게 되었을까?

선조(先祖)의 아호(雅號)인 둔촌과 지명(地名)인 둔촌의 상관관계는? 등 의문과 함께, 앞으로 시간을 두고, 깊이 연구하고 풀어야 할 숙제를 남기고 있다고 하겠다.

## ※ 금릉(둔촌) 찾아가는 길

분당선 서현역 2번 출구 → AK플라자 정류장 → 일반 누리 2번버스 승차 → 금토동 종점 정류장(18개 정류장) 하차 → 금호천을 끼고 금토로를 따라 약 1.2km → 귀은장지

- 대중회 사적심사위원 주병-

# 數字의 暗示



우리들의 생활상에서 필요불가결적(必要不可缺的) 숫자는 사물의 개수를 표기하는 글자이다. 이 숫자는 중국의 산목숫자(算木數字, Ⅰ, Ⅱ, Ⅲ) 및 한자숫자(漢字數字, 一, 二, 三), 로마숫자(Roma數字, I, II, III) 등으로 동서양에서 각기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목숫자 및 한자숫자를 사용했었다. 특히,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있어서는 산목숫자로서 마방진(魔方陣)을 산출하는 등으로 당시의 수학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國立果川科學館)의 과학기술인 명예(科學技術人名譽)의 전당(殿堂)에 헌정(獻呈)된 최석정(崔錫鼎 1646-1715년) 선생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도(印度)에서는 영(零, 0)의 기호와 자리를 나타내는 숫자를 만들어 내는 등 현행 숫자를 창출했다. 이 숫자를 아라비아상인(Arabia商人)에 의하여 서양으로 전파(傳播) 시킴으로써

서양의 Arabia 숫자(1, 2, 3)가 완성되었고, 그것이 국제화 됨으로써 현재의 산용숫자가 되었다. 그래서 현행 산용숫자를 '인도, Arabia 숫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사기관(公私機關)의 재산관리(財産管理)에 대한 장표검사(帳票檢査) 때에 객관적으로 만연(漫然)히 전표나 장부의 숫자를 조망(眺望)하는 것 만으로서는 공사규율(公私規律)에 어긋나는 처리상황(處理狀況)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없느냐를 염두



(念頭)에 두고서 성실하게 관찰했을 경우에는 이상하게 미동(微動)하면서 규율위배처리(規律違背處理)에 남용(濫用)되었음을 암시적으로 표출(表出)하는 징계자청(懲戒自請)의 숫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숫자는 공사기관 관계자들의 업적표시 수단으로써 활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가령, 재무부서에서는 재무규약(財務規約)에 준거(準據)해서 필요 숫자를 생성한다. 그 경우 재무부서 관계자들의 의사가 작용됨으로써 특정적 숫자가 생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관계자들에게 재무부정을 도모(圖謀)하고자 하는 자의적 의사(恣意的 意思)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그들이 생성한 그 숫자에 잠숙(潛宿)되기 때문에 그 자의성(恣意性)을 누군가에 누지(漏知) 시키고자 관계숫자가 암시적으로 표출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숫자가 표출되지 않게끔, 즉 규율위배처리에 남용되지 않게끔 관계숫자를 선용(善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처럼 무엇이든지 컴퓨터화(computer化)되기 이전의 회계시스템(會計system)에서는 방대(龐大)한 서류(紙類)의 전표나 장부에 의해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 장표류를 정밀(精密) 또는 표본조사식(標本調査式)으로 검사함이

중요한 검사기법(檢査技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장표검사는 일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신참(新參) 검사자가 담당했다. 그래서 방대한 장표검사에서는 단조로운 절차로써 막연하게 장표만을 검사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조속히 종료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심상(心狀)으로써는 도저히 재무부정(財務不正)이나 이상치(異常値)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강력한 집중력 및 주의력과 직업적 윤리(職業的 倫理)가 뒷받침된 재무부정이나 이상치를 간파(看破)할 수 있는 통찰력(洞察力)으로써 숫자를 주시(注視)하지 않으면 규율위배사항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공사기관측이 computer로써 방대한 숫자를 방출(放出)하기 때문에 검사인측에서도 통계적 분석기법(統計的 分析技法)이나 computer기법을 구사(驅使)해서 재무부정이나 이상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자(兩者)가 함께 도모하는 디지털화(digital化)에 과의존적 환경(過依存的 環境)에서는 검사기법 상에 폐해(弊害)도 발생한다. 그것은 검사인은 검사현장에서 개인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로써 조서(調書)를 작성한 다든지, 각종 점검표(點檢表)의 첨삭작업(添削作

業)에 여념(餘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피검사기관(被檢査機關)의 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기회(對話機會)가 적어짐으로써 면담을 통한 상대자의 미묘(微妙)한 언사, 안색이나 태도의 변화로부터 재무부정의 징후(徵候)를 파악하기 쉽지 않게끔 되는 것이다.

더욱이 computer는 인간이 작성한 예정표대로 작동하며, 인간이 입력한 숫자를 처리하여 그 결과로써 출력한 숫자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도 인간이다. 그러므로 숫자의 암시적 표출을 멈추게 하는 것은 부정방지적 윤리관(不正防止的 倫理觀)과 부정을 간파하는 직업적 회의심(職業的 懷疑心)을 가진 인간의 책임이라는 경종(警鐘)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소중한 이 숫자를 작금의 사이비 위인(似而非 偉人)들, 즉 몰지각적 위인배(沒知覺的 偉人輩)들 처럼 오예용(汚穢用)함으로써 그 암시적 표출을 자초하지 않게끔 신중히 유념(留念)하여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해 숫자가 주어진 역할을 다하게끔 매사에 선용해야 할 것이다.

-東亞大學校 名譽教授 舍人公 17代孫 容達-

## 2019년 11월 광문회 모임



광주이씨 광문회(회장 종구)는 지난 11월21일 (목요일) 퍼시픽호텔 2층 “남산홀”에서 2019년 도 마지막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종구 회장을 비롯한 대종회 옥재 도유사 등 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종철 총무의 진행으로 시작된 모임은 국민의례에 이어 참석 인사소개, 회장 인사, 그리고 대종회 옥재 도유사 종회소식 전달이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특강에서는 “남자, 날아보자 한국경제”라는 제목으로 종구 회장의 강의를 시작되었는데, 종구회장은 준비해온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상황과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 해법에 대하여 40여 분에 걸쳐 강의한 후 회원들과 질의

답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수원대학교 융학 교수로 부터 이순신 장군과 방진 장군을 중재하신 분이 동고(휘 준경) 선조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을 들은 후 준비된 뷔페식사와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본 기사는 지난 12월회보가 세일사특집 편성 관계로 부득이 이번호에 신게 되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광문회 총무 종철 記-

## 강동문화원 종합문화지 “좋은동네” 소개

강동문화원(원장 양재곤)이 발행하는 종합문화지 “좋은동네” (2019년 가을·겨울호)에 2019년 7월19일에 개최된 “제8회 둔촌백일장” 소식이 상세히 소개되었으며, 또한 양재곤 강동문화원장의 “강동구 향토문화 발굴·계승 더 주력할 터”라는 제목의 기획 연임 인터뷰 내용이 실려있다.

그 인터뷰 내용 중 우리 문종과 관련된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 아래에 소개하고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는 강동문화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질문 : 강동구에는 문화의 역사적인 향기가 많습니다.

원장님께서 특별히 소개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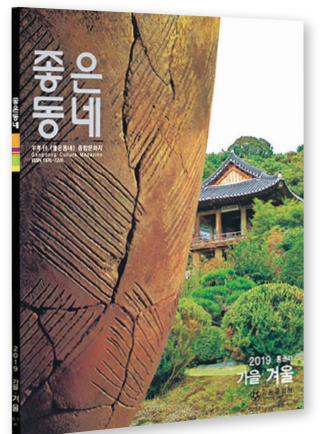
답변 : 우리 강동구 암사동에는 6천 년 전 인류 문명의 준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서울 암사동 신석기 유적>, <바위절마를 호상놀이>, <구암서원> 등 수많은 문화유적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의 교육을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밝은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둔촌 이집 선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둔촌 이집 선생은 강동구 둔촌동을 향관으로 두신 고려말의 대학자이시며 정치가로서 기개가 곧으시고 효심이 지극하셨으며 또한 후손에 대한 각별한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현재 강동대로에 둔촌 이집 선생 생가터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생가를 복원하여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향토문화 진흥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강동문화원에서는 600여 명이 참여하는 둔촌백일장을 해마다 개최하여 둔촌 선생의 고귀한 사상과 학문을 배우고 기리고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이 수록된 “좋은동네” 2019년 가을·겨울호는 강동문화원의 협조로 각 지파 총회에 2부씩 배포되었다.





#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聞道耶蘇法 (문도야소법)  
 예수의 교법을 듣자니  
 忘讐又愛仇 (망수우애구)  
 원한 잊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네  
 回看天不共 (회간천불공)  
 하늘 함께 이지 않는단 말씀 돌아보라  
 此理炳千秋 (차리병천추)  
 이 이치가 바로 천추에 빛나는 것이지

\*김평묵(金平默, 1819~1891), 『중암집(重菴集)』 권3 「서교(西教)에 원한을 잊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곧 인정에 가깝지 않은 말이다. [西教有忘讐愛仇之語 直是不近人情]

### [해설]

‘복수’와 그 허용 여부는 개인과 집단을 막론하고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나 심각한 과제였다. 특히 동아시아인의 관념과 언어 속에 깊숙이 깃들여 있는 “아버지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는다. [父之讐 弗共戴天]”는 명제

는 공적인 ‘법(法)’의 논리와 사적인 ‘효(孝)’의 윤리 사이에서 첨예한 모순을 이미 안고 있다. 이를 두고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일찍부터 논쟁을 펼치기도 하였다.

한말 격동기 유럽의 거장으로, 스승 이항로(李恒老 1792~1868)를 이어 위정척사(衛正斥邪)를 선도하였던 중암(重菴) 김평묵 역시 그 전통을 잇고 있다. 그가 지은, 아버지가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 형장(刑杖)을 맞아 죽자 소송 상대자를 칼로 찔러 죽인 두 아들을 효자로 표창한 기문(『북청이효자정려기[北靑二孝子旌闈記]』, 『중암집』권43)에서도 서교의 ‘망수애구(忘讐愛仇)’를 들어 ‘천리를 거스르고 인심을 저버리는 것[逆天理 拂人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이(洋夷)와 ‘일제(日帝)’라는 국가적 원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언명이 더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음은 어렵지 않게 헤아릴 수 있겠다.

‘원수’는 타자의 극단이고, ‘사랑’은 단계적

이어야만 하는 유교의 윤리로 볼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법은 분명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종교적 가르침의 극치는 그러한 모순을 초월해 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극기(克己)’ 또는 ‘무아(無我)’라고 명언합직한 ‘이기심’ 또는 ‘욕망’의 무화(無化)이며,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의미일 것이다. 모순에 가득 찬 현실을 직면하고 “총칼이 되기보다는 사랑용!” 이라고 외치며 영원한 불꽃이 된 청년 노동자 역시 그 십자가를 온몸으로 진 것이 아닐까?

곧 성탄일이다. 성탄은 늘 복음처럼 지나가고 또 도래한다. 단지 하루의 휴일로 지나기보다는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했던, 살아 있었고 또한 지금도 살아 있는 예수의 가르침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 땅의 새로운 ‘종교개혁’을 위해 연일 사자후를 토하는 노석학(老碩學)에게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

-정동화(한국고전번역원 책임연구원)-

## 해식 전 강동구청장 출판기념회 개최

해식 전 강동구청장(본문 광원군파 제19代孫)은 지난 12월11일(수) 강동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제21대 국회 출사표를 던지고 “낮설고 익숙함”이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계에서 이부영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십여 명의 정치인과 강동구의 유명 인사들, 그리고 문중에서는 대중회 옥재 도유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각 지파도유사 등 많은 종인들과 500여 명의 지역 구민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해식 현종은 1963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경남 마산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육군 제2사단에서 병역의무를 마치고, 이부

영 국회의원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한 뒤 1995년 최연소 최다득표로 강동구 의회의원, 1998년과 2002년 서울시 의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되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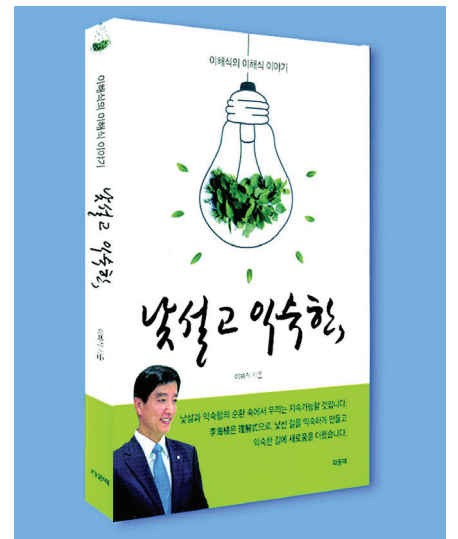
2008년 강동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2018년까지 3선을 하며,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구청장으로 선정되고, 다산목민대상 본상과 대통령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등 구정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당대표 후보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해식 현종은 문중을 위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둔촌 선조님의 선양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해왔다.

오는 4·15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

며, 종인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란다.



## 응래 전 대중회 도유사(제8代) 타계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응래 대중회 전 도유사(향년 94세)께서 지난 12월 16일(월) 타계하셨다.

응래 도유사께서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역임하시고, 대중회 제8대(1998년~2005년) 도유사로 집행부를 이끄시면서 추모재 준공 마무리, 대중회 홈페이지 최초 구

축, 광이 장학관리위원회 발족, 상대 선조님 비문 번역, 하남시 개발에 따른 덕풍동 부지 수용 건 처리, 삼성동 수도빌딩 확보 등 종사에 큰 애정을 갖고시고 많은 업적을 남기셨으며, 장지는 수원 선영으로 모셔졌다.



# 보학용어 해설[29]

## 과거제도(科擧制度) [6]

### 3. 과거의 종류

#### 다. 사마시(司馬試)

고려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로써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뽑는 소과(小科)를 이르는 말로, 생진과(生進科) 또는 감시(監試)라고도 한다.

#### 라. 생원 진사의 초시 정수

지역	정수(명)	지역	정수(명)
한성부	268	황해도	35
충청도	90	평안도	45
경상도	100	함경도	35
전라도	90	경승보	30
강원도	45	합제	48

#### 마. 소과복시(小科覆試)

조선시대 소과의 제2차 시험. 소과 초시 합격자 1,400명이 서울에 모여 보던 시험으로 회시(會試) 생진복시(生進覆試) 감시복시(監試覆試)라고도 하였다. 시험은 자(子)·묘(卯)·오(午)·유(酉)의 식년(式年) 2월이나 3월에 예조(禮曹)와 성균관 두 곳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소과 복시에 합격한 생원·진사 각 100명은 길일(吉日)을 택하여 전정(殿庭)에서 시신(侍臣)과 사관(四館)의 참하관(參下官)들이 시립(侍立)한 가운데 방방의(放榜儀)라는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여기에서 국왕으로부터 합격증인 백패(白牌)와 주과(酒果)를 하사받았다. 생원·진사들은 이로써 대과(大科)인 문과(文科)에 응시할 자격과 성균관 상재생(上齋生)할 자격을 얻었고, 관직을 원하면 하급관리로 등용될 수도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선비 대접을 받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 둔촌선생 명시선 61

### 寄陶隱 기도은

子安年甚少還似老成翁高義追前輩  
 子安년심소환사로성옹고의추전배  
 新詩繼國風三年江海謫一日道途通  
 신시계국풍삼년강해적일일도도통  
 努力扶王室從今慎厥終  
 노력부왕실종금신결종

### 도은에게 부치다

자인(子安)은 나이 아주 젊지만  
 오히려 노성(老成)한 어른 같도다.  
 고의(高義)는 선배를 바짝 따르고  
 신시(新詩)는 국풍(國風)을 이었다네.  
 강해(江海)에서 삼 년의 귀양살이 끝에  
 하루는 갑자기 길이 트였지.  
 힘을 다하여 왕실을 부호(扶護)하여  
 지금부터 조심조심 결종(厥終)을 이루게나

1) 국풍(國風): 시경(詩經)의 시체(詩體)의 하나.  
 각국의 풍속, 인정을 읊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  
 사물(事物)의 도리 또는 이치(理致)

## 이달의 明心寶鑑

- 親有十分慈      친유십분자
- 君不念其恩      군불념기은
- 兒有一分孝      아유일분효
- 君就揚其名      군취양기명
- 待親暗待兒明      대친암대아명
- 誰識高堂養子心      수식고당양자심
- 勸君漫信兒曹孝      권군만신아조효
- 兒曹親子在君身      아조친자재군신

### [해설]

부모는 한껏 그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나, 그대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조금의 효도함이 있으면, 그대는 곧 그 이름을 드날리려 한다. 부모 대접하는 데는 어둡고 자식 대접하는 데는 밝으니, 누가 부모의 자식 기르는 마음을 알 것인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함부로 아이들의 효도를 믿지 말라. 아이들의 아버지요 부모의 자식이 바로 그대 몸이다,

-팔반가(八反歌) 중에서-



# 재경화수회 산악회 송년 산행

재경화수회 산악회(회장 재석)는 지난 12월22일(일요일) 기해년 마지막 송년 산행으로 안산 자락길을 다녀왔다.

오전 10시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모인 20여 명의 회원들은 반가이 인사를 나누며 모임 장소를 출발하여 안산 자락길 산행에 올랐다. 이수 등반대장의 안내에 따라 독립문형무소 역사관 옆길을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며 어렵지 않게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였다.

전에도 한 번 왔던 길이라 그런지 낯설지 않은 코스가 정감을 느끼게 일행을 맞이해 준다.

우측으로 북악산의 멋진 능선을 바라보며 높은

절벽 위에 아슬하게 올려진(?) 커다란 바위 하나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40여 분 숲의 내음을 맡으며 걸으니 길옆 전망 좋은 장소에 정자가 있는 쉼터(이름은 잊었음)가 나온다. 그곳에서 잠시 쉬기로 하고 뒤에 오는 일행을 기다려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휴식을 취한 일행은 산행 후 총회 겸 송년 모임이 계획되어 식당 예약상 일찍 하산하기로 하고 서둘러 내려와 예약된 식당에 자리하였다.

푸짐하게 차려진 석굴과 꼬막을 안주로 반주를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 차기 회장은 오는 3월 결정하기로 하고 이날 행사를

모두 마쳤다.

-산악회 총무 성수記-



##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b>12월 구독 및 찬조</b>			이우석	10,000	경상북도 칠곡군	이용근	1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이용배	10,000	경기도 성남시	이범수	10,000	서울시 강남구	이필재	1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이종명	10,000	서울시 광진구	이종상	10,000	서울시 서대문구	이종하	1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이정수	10,000	서울시 송파구	이경재	10,000	경기도 동두천시	이수광	1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이용만	10,000	경기도 성남시	이성재	10,000	경기도 동두천시	이세진	10,000	경기도 성남시
이영수	10,000	서울시 마포구	이욱재	10,000	경기도 동두천시	이동환	10,000	충청남도 부여군
이중우	10,000	서울시 광진구	이윤재	10,000	경기도 동두천시	이중배	10,000	충청남도 금산군
이찬수	10,000	경기도 성남시	이익재	10,000	경기도 동두천시	이헌래	50,000	광주광역시 북구
이건재	10,000	경기도 성남시	이정재	10,000	경기도 동두천시	이윤래	10,000	경기도 포천시
이경재	10,000	경기도 성남시	이종국	10,000	경기도 동두천시	이수백	1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관수	10,000	서울시 강동구	이종식	10,000	서울시 동대문구	이윤재	20,000	인천광역시 남구
이태수	10,000	경기도 하남시	이종욱	10,000	경기도 동두천시	이종갑	20,000	전라남도 보성군
이우재	10,000	서울시 송파구	이종익	10,000	서울시 도봉구	이철수	30,000	경기도 용인시
이종삼	10,000	경기도 성남시	이종진	10,000	서울시 은평구	이우빈	10,000	전북 익산시
이종근	10,000	경기도 시흥시	이종찬	10,000	경기도 동두천시	이종구	50,000	경기도 안양시
이종목	10,000	경기도 성남시	이종철	10,000	서울시 성동구	이덕규	20,000	경남 창원시
이종태	10,000	경기도 고양시	이종호	10,000	서울시 은평구	이용발	10,000	경기도 고양시
이종승	10,000	경기도 성남시	이종훈	10,000	경기도 동두천시	이용근	2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동수	10,000	경기도 성남시	이춘재	10,000	경기도 동두천시	이용선	10,000	전라남도 보성군
이성수	10,000	서울시 성북구	이종화	10,000	경기도 평택시	이동해	10,000	서울시 영등포구
이근수	10,000	경기도 성남시	이석재	1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이종준	2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이연재	10,000	경기도 여주시	이종현	1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이근영	10,000	강원도 횡성군
이용민	10,000	경기도 여주시	이준재	1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이진환	100,000	서울시 강남구
이삼용	10,000	경기도 의정부시	이욱재	1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이상익	30,000	서울시 송파구	이용택	10,000	경상북도 구미시			

###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0,000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59691-01-110

농협은행 : 301-0218-9163-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회보를 받아 보실 주소 및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 보내주시거나

☎ 02)735-1720으로 연락하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0年 1月 1日

<제355호>

##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玉載

編輯人 : 李錫演

主幹 : 李碩載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